

제목: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3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1) 못 _____ 사람들이 있습니다.
- 2) 천국에 _____ 사람들이 있습니다.
- 3) 많은 사람들이 _____에서 나와 천국으로 갑니다.

|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 |
|---------------------------------|----------------------------------|
|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
|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
|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

| 지난 주 헌금 | |
|---------|--|
| 십일조 | |
| 주일 | |
| 합계 | |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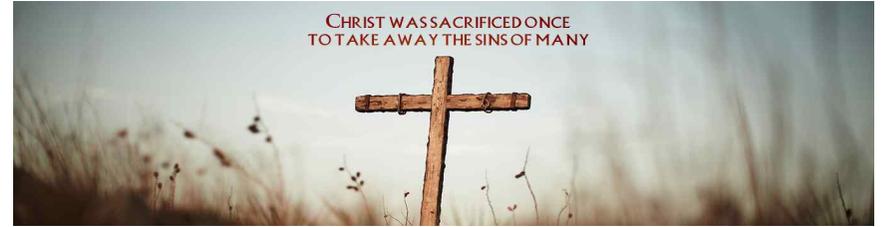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13장 22-3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13: 22-30 신약 118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김성민 목사
 Message Heavenly Call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재활용 전문가이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지난 주에 은혜 받은 글을 소개합니다.

.....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 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쓸모없어 던져버릴 쓰레기란 없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선한 손길을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토기장이이신 그분께서 다시 빚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손 위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 악몽처럼 남은 기억, 남겨진 상처의 흔적, 나를 아프게 한 가해자, 그 모두에 대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여기 저기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쓰레기로 여겨 던져버리면 내 인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 모든 것을 선한 손 위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 애통하면 우리의 상처와 기억도 치유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버림 받은 고통, 구덩이 빠진 기억, 벅찬 종살이와 옥살이, 버린 형들과 모함했던 여주인, 모두 쓰레기처럼 주변에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 위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토기장이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지만 자신도 구속하고 어둠 속에 머물게 하여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용서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 자신을 해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함께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 중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빚어진 큰 실패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인생의 그런 부끄러운 기억도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하며 던져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이 보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 받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기도 어렵고 더더욱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며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찾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용서를 청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용서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를 훌훌 털고 새롭게 살아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는데 있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 위에 올려놓고 새벽빛을 바라며 첫발을 새롭게 내딛는 것입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 | |
|--------------------|---------------------------|
| Deep Roots Church: |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 백남일 선교사: |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
| 김인선 선교사: |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2022년 3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한권 씩 받아 가서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